

맥락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조숙자 방희정* 조혜자 김현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맥락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 144명에게 관계적 자기척도, 가족관계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는 관계대상에 따라 상이한 관계적 자기의 양상을 나타냈으며 관계적 자기 6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지받기와 관계의존은 자녀, 배우자, 친정, 시댁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으며, 주도성, 공감배려는 자녀에 대해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와 친정에 대해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시댁에 대해서는 관계회피가 높았으며, 친정에 대해서는 타인의식이 낮았다. 둘째, 어머니 취업상태 및 가계 월소득 수준의 경제적 맥락에 따라 관계적 자기는 차이를 보였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는 전업주부 및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보다 주도성이 높았다. 월 소득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주도성과 공감배려가 높았으며,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은 주도성과 관계회피가 높은 반면 관계의존과 타인의식이 낮았다.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은 타인의식이 낮았다. 셋째, 가족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의 심리적 맥락에 따라 어머니의 관계적 자기 양상은 차이를 보였다. 가족관계의 질과 사회적 지지 고집단은 지지받기, 공감배려, 관계의존이 높았으며, 가족관계 질과 사회적 지지 저집단은 관계회피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처해 있는 맥락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적 자기를 경험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심리내용을 밝힘으로서 발달 맥락을 어떻게 기술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관계적 자기,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 관계대상, 경제적 맥락, 심리적 맥락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 교신저자 : 방희정, E-mail: hjbang@ewha.ac.kr

개인은 삶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며 산다. 시종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하는 상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는 순응적이지만 동료에게는 도전적인 사람도 있으며, 또래관계에서 수동적인 아이가 성장한 후, 활동적이고 적극적 부모로 변모하기도 한다. 흔히 이런 변화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맥락을 꼽는다. 최근으로 올수록 개인 발달에서의 맥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이 마주하는 맥락은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 되었다(Bronfenbrenner, 1979; Lerner, 1996).

개인의 자기는 인간관계, 맡은 역할, 삶 속에서 전개되는 역할의 전환, 개인의 경제 및 심리적 조건 등 개인을 둘러싼 맥락의 변화와 맞물려 발달한다. 자기의 다양한 측면 중 사회적 관계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는 것은 관계적 자기이다.

방희정 등(2007)에 따르면, 관계적 자기는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정의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의 한 측면이다. 변화하는 맥락이란, 예를 들어 진학, 결혼, 자녀 출산, 취업, 이혼, 등으로 물리적 상황, 경제적 상황, 심리적 상황 등 개인을 둘러싼 제반 조건이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 새롭게 적응을 요구한다. 이 때 개인은 이전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기도 한다.

맥락에 따라 개인이 각기 다른 자기를 표현하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연구자들에게 논란으로 남아있으며, 상이한 자기를 표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 개인의 관계적 자기가 과연 맥락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에게 맥락의 변화는 인간관계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관계 대상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변화 여부는 중요한 질문이다. 또한 현대 사회 구조에서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취업, 소득수준 등 경제적 맥락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달라질지의 여부도 흥미롭다. 더불어 개인의 변화는 가족관계의 질, 개인의 행복감, 사회적 지지 여부 등 심리적 맥락에도 반영되어 그 결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면적인 관계적 자기

관계적 자기에 관한 관심은 자기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 비롯된다. William James(1890)가 ‘사회적인 자기(social self)’라는 개념을 소개한 이래로, Cooley(1902)는 자기의 지각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개인의 주관적 해석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체경자기(looking glass self)를 주장하였으며, Mead(1934)는 이를 더욱 확장시켜 자기는 사회와 자신과의 사회적인 경험의 산물로서, 자기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타인에게서 비롯되며,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신분석학에서도 자기 발달의 대인관계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Fromm, 1962; Sullivan, 1953, 1964) Markus(1977, 1982)는 자기가 자기도식(self-schema)으로 표상된다고 보며 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측면들에 대한 평가를 반복 경험하면서 구성된다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자기에 관한 이론들은 자기의 단일성과 안정성을 강조해왔지만, 최근에는 다중적이고 다면적 자기에 관한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

Kihlstorm과 Cantro(1984)는 자기와 관련된 표상

이 맥락마다 각기 다른 신념을 표상하는 맥락 특수적 자기 개념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Markus(1977), Fiske와 Taylor(1991)는 자기 표상을 여러 영역의 자기 스키마로 구성된 다중적인 연합망 체계로 설명하였다(방희정 등, 2007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다면적 자기에 대한 강조는 관계적 자기에서 더욱 현저히 드러난다. Chen, Boucher 및 Tapias(2006)는 관계적 자기의 연구들을 개괄하면서, 관계적 자기는 중요한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지식이라고 정의하면서 관계적 자기는 특수성의 수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머니, 배우자, 아들 등 중요한 특정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 특수적(relationship-specific) 관계적 자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단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혹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등과 같이 일반적 관계 맥락에서 드러나는 자기표상의 요약으로서의 일반적(generalized) 관계적 자기, 인간관계를 일반화시켜 개념화한 포괄적인(global) 관계적 자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관계 맥락이 어느 정도 추상적인가에 따라 다양한 관계적 자기가 관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계 특수적 관계적 자기는 실제 개인들이 중요한 타인과 관계 맺을 때 드러나는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므로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Andersen & Chen, 2002; Ashmore & Jussim, 1997; Rosenberg, 1997). 이들은, 사람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기 개념에 반영하고, 서로 다른 자기 표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즉 '타인과 있을 때의 자기(self with oth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람들은 같이 있는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각기 다른 자기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즉 '중요한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self-with specific other)'는 각기 다른 내용일 수 있으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험이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Chen 등(2006)은 관계적 자기가 맥락에 따라 단기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중 자기 이론이나 자기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시점이나 맥락에서 자기의 모든 측면들을 내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다양한 측면들 중 맥락이나, 관계 대상의 요구에 따라 특정 측면만이 활성화된다고 보았다. 즉 자기의 표상 전체가 아니라 그 중 하위 특성만 활성화되어 현재 개인의 활동과 반응을 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Markus와 Cross(1990)는 이러한 자기를 작업 중인 자기 개념(working self-concept)으로, Baumeister(1998)는 현상적 자기(phenomenal self)로 명명하였다. Higgins(1989, 1996)에 따르면 이렇게 자주 활성화된 자기개념은 만성적 활성화 수준을 증가시켜 맥락단서를 덜 필요로 하게 된다. 즉 관계적 자기는 즉각적이고 맥락적인 단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는 관계적 자기는 쉽게 작업 중인 자기개념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혜자 등(2006a, 2006b)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에 주목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을 기술할 때 관계적 측면을 더 많이 언급하여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관계적 자기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연령에 따라 서도 상이한 관계적 자기의 측면을 드러내, 20대는 자기에 대해 언급할 때, 관계적 자기보다는 개인적 자기에 관한 언급을 더 많이 한 반면, 30대부터 관계적 자기와 관련된 언급이 증가하고, 50대에 들어

서면 더 큰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밝혔다.

또한 노경란 등(2007)은 개인특성으로서의 애착 유형과 성별에 따른 관계적 자기를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표현과 패턴이 달라짐을 밝혔다. 그러나 대인관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크기가 높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애착특성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 외에 대인관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 예를 들어 관계대상과 같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으며, 상황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관계적 자기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관계적 자기는 변하지 않는 단일한 구성물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다면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은 다양한 수준의 경제수준, 취업상태, 가족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어떻게 다른 관계적 자기를 나타내는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자기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역할의 특성

우리 문화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삶에서 전환점을 전환을 더 많이 경험한다. 특히 여성은 결혼, 자녀 출산, 양육이라는 역할 전환의 전기를 맞으며 맥락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 또한 자녀를 둔 여성은 개인적 요구와 가족 요구 사이에서 가족에게 자신을 맞추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기혼 남성과 다르다.

Duvall과 Miller(1985)는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개념을 소개하면서, 가족 시스템 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고 기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가족은 가족형성기, 자녀 출산기, 학령 전 자녀 가족, 학동기 자녀 가족, 청소년 자녀 가족, 성인자녀 가족, 중년기 가족, 노화하는 가족으로 이어지는 가족생활주기 속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각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고유의 발달과업과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학동기 자녀 가족 및 청소년 자녀 가족의 발달과업은 아동의 발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재정 능력 유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친척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등 인데(장휘숙, 1997), 이 중 재정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여겨지는 과업들이다. 결국 가족의 발달과업은 상당 부분 어머니의 활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복잡한 인간관계의 정점에서 있으며, 관계 대상에 따라 복잡한 관계적 자기가 표현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ossi(1977)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수유와 같은 생물학적 조건은 여성으로 하여금 더욱 부모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또한 여성은 출산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전통적 부모역할이 활성화되어 경제 활동은 남성의 몫으로 육아와 가사는 여성으로 몫으로 여기며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머문다(Cox, 1990). 게다가 결혼관계를 통하여 기존의 부부의 원가족은 시대와 친정이라는 확대되고 복잡해진 가족 관계 속에 들어간다. 가족 발달과업으로 주어진 역할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몫이 되며, 어머니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은 역할이 너무

많은 점과 역할에서 요구되는 특성들이 때로는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다. 배우자, 어머니, 주부, 며느리, 딸, 그리고 최근 들어 무시할 수 없는 경제주체로서의 역할 등은 관계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어머니에게 각기 다른 특성을 요구한다. 특히 배우자, 자녀, 시댁, 친정과의 관계는 어머니를 둘러싼 주요한 관계대상으로 어머니의 다양한 관계적 자기가 표현되는 인간관계 맥락이며, 이들 역할은 때때로 상충된다. 예를 들어,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머니는 수동성과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반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주도적인 면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이 어머니의 경제적 맥락 혹은 심리적 맥락이 변해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다중 역할과 역할 긴장을 경험하며 다양한 외적, 심리적 맥락을 경험할 것이고 다양한 생활 맥락은 다면적 관계적 자기가 기능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는 다면적이고 유동적인 관계적 자기의 양상을 드러내며 살 것이라고 예측된다. 기존 발달 연구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혹은 발달 시기로서의 중년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 어머니는 복잡한 가족관계 속의 중심적 존재로 초점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 역할, 역할전환, 역할갈등, 복잡한 인간관계망의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대상이 누구인지 즉 관계대상(배우자, 자녀, 시댁, 친정)에 따라, 관계적 자기 6요인(관계적 자기 척도의 6요인: 지지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관계회피, 타인의식)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상태, 가계 월 소득과 같은 경제적 맥락과 가족관계의 질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맥락에 따라 관계적 자기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관계대상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가?

2. 어머니의 경제적 맥락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가?

2-1. 어머니의 취업 상태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가?

2-2. 가계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가?

3. 어머니의 심리적 맥락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가?

3-1. 가족관계의 질 고저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가?

3-2. 사회적 지지 고저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규모로 수행된 연구의 일부로,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신뢰로운 반응을 얻기 위하여 설문지는 밀봉한 상태로 회수되었고, 설문에 응답한 대가로 삼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모두 172명의 자료를 수집한

후, 결측치가 너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4명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7.93세였으며, 31세에서 48세에 이르는 연령범위에 있었으며, 연령의 표준편차는 3.10이었다.

측정도구

관계적 자기 척도(Relational Self Scale: RSS)

인간관계 맥락에 따른 어머니의 관계적 자기를 측정하기 위해 방희정 등(2007)이 개발한 관계적 자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관계적 자기 척도는 7요인 3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관계적 자기 척도는 지지 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관계 회피, 타인 의식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리커트(Likert) 6점 척도 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점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관계적 자기 척도는 각 하위요인 별로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전체 대인관계 양식의 패턴(프로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이를 통해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7요인은 다음과 같다. '지지 받기' 요인은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경험 및 정서적 지원을, '주도성' 요인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관계 의존' 요인은 인간관계 및 타인에게 과도하게 몰두하고 자신을 배제한 채 타인에게 초점을 두는 내용을 반영하며, '공감-배려' 요인은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조화 및 배려를 중시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도구성' 요인은 관계를 통해 실제적인 도움과 이득, 파워를 얻으려는 경향성을 반영하고, '관계 회피' 요인은

타인과 관계에서의 무능감 및 관계회피 경향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며, '타인의식'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욕구 등을 반영하는 요인이다. '도구성' 요인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어머니에게 중심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자기 6요인만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관계적 자기를 측정하는 척도로 개발된 관계적 자기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질문 방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인간관계 대신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서 배우자, 자녀, 시댁, 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관계 맥락에서의 자신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였다. 즉 이들 관계 맥락을 관계적 자기 척도 문항 앞에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편이다'를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나는 OO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편이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관계적 자기 척도 신뢰도는 각 관계 맥락에서의 하위 요인별로 .65 - .88 수준을 보여 적절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가족관계의 질 척도

가족관계의 질은 어머니 심리적 맥락을 구성하며 관계적 자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양옥경(2001, 2003)이 개발한 가족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친밀, 인정책임, 수용존중의 3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좋은 가족관계의 질을 나타낸다. 정서친밀 요인은 '우리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등과 같은 11개 문항, 인정책임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족 중 한사람을 탓한다'(역문항)와 같은 7개 문항, 수용존중은 '우리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와 같은 6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점수를 합한 총합 점수를 사용하였고, 가족관계 총합 점수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질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족관계의 질 고집단은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관계 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2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

어머니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어머니의 심리적 맥락을 달리하고 이는 관계적 자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Cutrona와 Russell(1987)이 제작하고 유영란(2005)이 번안한 사회적 지지척도(Social Provision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 친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및 지지 여부를 묻는 5점 척도 24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힘든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어머니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한 총합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총합 점수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지지 고집단은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많다고 느끼는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1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원 및 이원 반복 다변량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종속변수인 관계적 자기(관계적

자기 척도의 6요인 : 지지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관계회피, 타인의식)는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어 사각회전(oblique)을 통해 얻어진 요인임으로 다변량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어머니가 피험자 내 변인인 관계대상(배우자, 자녀, 시댁, 친정)에 따라 종속측정치인 관계적 자기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반복 다변량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상이 경제적 맥락과 심리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를 둘러싼 경제적 맥락으로 어머니 취업상태, 가계 월 소득을 알아보았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맥락은 가족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의 총합 점수를 중앙치를 중심으로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관계대상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어머니의 취업상태, 가계 월소득, 가족관계 질 고저, 사회적 지지 고저를 피험자 간 변인으로 하여 이원 반복 다변량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종속변수가 많기 때문에 야기되는 알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의도 수준은 .01로 낮추어 버퍼링 작업을 하였다.

결 과

1. 관계대상 맥락에 따른 결과

먼저,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계대상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6요인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관계대상에 따라 관계적 자기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반복 다변량분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다변량분산 분석의 동질성 가정의 위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Box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였으나 분산의 동질성 가정에 가장

표 1. 관계대상에 따른 관계적 자기 6요인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 6요인 관계대상 | 지지받기 | 주도성 | 관계의존 | 공감배려 | 관계회피 | 타인의식 | 전체 평균 |
|-------------|-------------|-------------|-------------|-------------|-------------|-------------|-------------|
| 배우자 | 18.06(4.13) | 19.03(4.40) | 16.48(3.63) | 18.04(3.40) | 7.66(3.83) | 19.38(5.05) | 15.88(3.88) |
| 자녀 | 19.44(2.80) | 20.54(3.93) | 18.72(3.03) | 19.13(2.47) | 5.91(2.10) | 19.92(4.87) | 16.77(2.88) |
| 시댁 | 13.08(3.81) | 14.87(4.34) | 12.32(3.43) | 14.65(3.53) | 11.92(4.80) | 19.09(4.86) | 14.32(4.12) |
| 친정 | 16.66(3.58) | 17.92(4.06) | 14.39(3.54) | 17.54(2.83) | 7.95(3.41) | 17.02(4.56) | 14.86(3.48) |
| 전체 평균 | 16.82(3.56) | 18.09(4.66) | 15.48(4.16) | 17.34(3.50) | 8.36(4.27) | 18.85(4.95) | |

()안은 표준편차

표 2. 관계대상에 따른 다변량분산 분석 결과

| 독립변인 | Pillai 트레이스 | F | df / 오차df | p | 부분에타 ² |
|------|-------------|-------|-----------|-----|-------------------|
| 관계대상 | .57 | 22.88 | 18/1734 | .00 | .19 |

표 3. 관계대상에 따른 관계적 자기 6요인의 사후검증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제공합 | 단변인 F 값 | p | 부분에타 ² |
|------|------|---------|---------|-----|-------------------|
| 관계대상 | 지지받기 | 3277.34 | 83.63 | .00 | .30 |
| | 주도성 | 2519.60 | 47.82 | .00 | .19 |
| | 관계의존 | 3315.69 | 94.72 | .00 | .32 |
| | 공감배려 | 1602.30 | 55.79 | .00 | .22 |
| | 관계회피 | 2826.41 | 69.97 | .00 | .26 |
| | 타인의식 | 703.83 | 10.00 | .00 | .04 |

robust한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사용하여 이 점을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관계대상에 따라 종속변수인 관계적 자기의 6요인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8, 1734)} = 22.89, p < .001$). 즉 어머니는 관계대상에 따라 다른 관계적 자기의 양상을 나타냈다.

종속변수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단변인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계대상에 따라 관계적 자기 6요인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관계대상들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지받기의 평균값은 $M_{\text{배우자}} = 18.06, M_{\text{자녀}} = 19.44, M_{\text{시댁}} = 13.08, M_{\text{친정}} = 16.69$ 로 모든 관계대상의 평균차가 유의하였으며 자녀, 배우자, 친정 시댁의 순서로 지지받기 점수가 높았다. 주도성의 평균값은 $M_{\text{배우자}} = 19.03, M_{\text{자녀}} = 20.54, M_{\text{시댁}} = 14.87, M_{\text{친정}} = 17.92$ 로

배우자와 친정을 제외한 모든 관계대상에서 평균차가 유의하였다. 관계의존의 평균값은 $M_{\text{배우자}} = 16.48, M_{\text{자녀}} = 18.72, M_{\text{시댁}} = 12.32, M_{\text{친정}} = 14.39$ 로 모든 관계대상의 평균차가 유의하였으며 자녀, 배우자, 친정, 시댁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다. 공감배려의 평균값은 $M_{\text{배우자}} = 18.04, M_{\text{자녀}} = 19.13, M_{\text{시댁}} = 14.65, M_{\text{친정}} = 17.54$ 로 배우자와 친정을 제외한 모든 관계대상에서 평균차가 유의하였다. 관계회피의 평균값은 $M_{\text{배우자}} = 7.66, M_{\text{자녀}} = 5.91, M_{\text{시댁}} = 11.92, M_{\text{친정}} = 7.95$ 로 배우자와 친정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평균차가 유의하였다. 시댁에 대한 관계회피 점수는 배우자, 자녀, 친정에 비해 높았으며 배우자에 대한 관계회피점수는 자녀보다 높았다. 타인의식의 평균값은 $M_{\text{배우자}} = 19.38, M_{\text{자녀}} = 19.92, M_{\text{시댁}} = 19.09, M_{\text{친정}} = 17.02$ 로 친정은 배우자, 자녀, 시댁보다 타인의식이 유의하게 낮았다.

요약하면, 지지받기와 관계의존은 모든 관계대상의 평균차가 유의하였으며 자녀, 배우자, 친정, 시댁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다. 한편, 주도성, 공감배려, 관계회피는 배우자와 친정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의 평균차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배우자와 친정에 대해 주도성, 공감배려, 관계회피 측면에서 비슷한 관계적 자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댁에 대해서는 관계회피가 높았으며, 친정에 대해서는 타인의식이 낮았다.

2. 경제적 맥락에 관한 결과 : 어머니 취업상태, 가계 월 소득

앞에서는 피험자 내 변인인 관계대상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피험자 간 맥락 변인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양상을 알아보았다. 피험자 간 맥락 변인은 어머니의 경제적 맥락과 심리적 맥락 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를 둘러싼 경제적 맥락으로 어머니 취업상태, 가계 월 소득과 관련된 결과를 알아보았다.

1) 어머니 취업상태에 관한 결과

취업 상태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142명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142명 중 주부가 75명(52.82%)으로 가장 많았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는 36명(25.35%)이었으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는 31명(21.83%)이었다. 취업여부에 따른

관계적 자기 6요인의 평균점수가 표 4에 제시되었고 어머니 취업 상태에 관한 이원 반복 다변량분산 분석의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따르면, 관계대상에 따른 종속변인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8, 1686)} = 20.71, p < .001$). 또한 취업 상태에 따른 종속변인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2, 1122)} = 2.67, p < .001$). 관계대상과 취업상태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수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단변인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계대상에 따라 관계적 자기 6요인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취업상태에 따른 종속변수 6가지의 단변인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도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_{(2, 366)} = 8.19, p < .001$).

독립변인인 취업상태에 따른 사후검증을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취업상태에 따라 주도성은 .01 유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 풀타임은 주부 및 파트타임보다 주도성이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른 주도성의 평균값은 $M_{주부} = 17.91, M_{풀타임} = 19.22, M_{파트타임} = 17.22$ 이었다.

표 4. 취업상태에 따른 6요인의 평균점수

| 관계적 자기 \ 취업상태 | | 주부 | 풀타임 | 파트타임 |
|---------------|------|-------|-------|-------|
| | | | | |
| 6 요 인 | 지지받기 | 16.70 | 17.20 | 16.64 |
| | 주도성 | 17.91 | 19.22 | 17.22 |
| | 관계의존 | 15.29 | 15.54 | 15.95 |
| | 공감배려 | 17.38 | 17.31 | 17.16 |
| | 관계회피 | 8.58 | 8.07 | 8.30 |
| | 타인의식 | 18.63 | 18.75 | 19.67 |

표 5. 취업상태에 따른 다변량분산 분석 결과

| 독립변인 | Pillai 트레이스 | F | $df / 오차df$ | p | 부분에타 ² |
|-------------|-------------|-------|-------------|-----|-------------------|
| 관계대상 | .54 | 20.71 | 18/1686 | .00 | .18 |
| 취업상태 | .05 | 2.67 | 12/1122 | .01 | .02 |
| 관계대상 * 취업상태 | .05 | .9 | 36/3390 | .63 | .01 |

2) 가계 월 소득에 관한 결과

가족 월 소득에 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143명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월 소득분포는 월100만원 미만 6명(4.19%), 10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 27명(18.88%), 200만원에서 299만원 사이 52명(36.36%), 300만원에서 399만원 사이 32명(22.37%), 400만원에서 499만원 사이 18명(12.58%), 500만원 이상 8명(5.59%)이었다. 가족 경제 수준에 따른 관계적 자기 평균점수가 표 6에 제시되었다.

가계 월 소득에 관한 이원 반복 다변량분산 분석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에 따르면, 관계대상에 따른 종속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8, 1662)} = 13.78, p < .001$). 또한 가계 월 소득 수준에 따른 종속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30, 2780)} = 3.67, p < .001$). 관계대상과 가계 월 소득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인에 대한 단변인 F 검증을 한 결과, 관계 대상에 따라 6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6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독립변인인 가계 월 소득 수준에 따른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지지받기는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과 1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p < .01$), 월 소득이 높을수록 지지받기가 높았다. 지지받기의 평균값은 $M_{100만원미만} = 15.20, M_{300-399만원} = 17.51, M_{400-499만원} = 17.50, M_{500만원 이상} = 18.75$ 였다. 둘째, 주도성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집단이 월소득 100-199만원 집단, 월소득 400-499만원 집단, 월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1$). 주도성의 평균값은 $M_{100만원미만} = 20.41, M_{100-199만원} = 17.51, M_{400-499만원} = 17.29, M_{500만원 이상} = 17.15$ 였다. 셋째, 관계의존에서 월소득 100

표 6. 가계 월소득에 따른 관계적 자기 6요인의 평균점수

| 월 소득 | | 100만원 미만 | 100-199만원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만원 | 500만원 이상 |
|--------|------|----------|-----------|-----------|-----------|-----------|----------|
| 관계적 자기 | 지지받기 | 15.20 | 16.10 | 16.49 | 17.51 | 17.50 | 18.75 |
| | 주도성 | 20.41 | 17.51 | 18.20 | 18.68 | 17.29 | 17.15 |
| | 관계의존 | 13.41 | 15.10 | 13.36 | 15.75 | 16.52 | 15.87 |
| | 공감배려 | 15.87 | 17.40 | 16.98 | 17.39 | 17.93 | 19.18 |
| | 관계회피 | 10.00 | 8.44 | 8.43 | 8.60 | 7.54 | 6.84 |
| | 타인의식 | 15.37 | 19.19 | 18.51 | 19.31 | 20.79 | 16.65 |

표 7. 가계 월 소득에 따른 다변량분산 분석 결과

| 독립변인 | Pillai 트레이스 | F | df / 오차df | p | 부분에타 ² |
|-------------|-------------|-------|-----------|-----|-------------------|
| 관계대상 | .39 | 13.78 | 18/1662 | .00 | .13 |
| 월 소득 | .19 | 3.67 | 30/2780 | .00 | .03 |
| 관계대상 * 월 소득 | .10 | .64 | 90/3342 | .99 | .01 |

만원 미만 집단은 월소득 200만원 이상 집단들과 유의한 차이가 보여($p < .01$), 월소득 최저집단이 관계의존이 낮았다. 관계의존의 평균값은 $M_{100만원미만} = 13.41$, $M_{200-299만원} = 13.36$, $M_{300-399만원} = 15.75$, $M_{400-499만원} = 16.52$, $M_{500만원 이상} = 15.87$ 이었다. 넷째, 공감배려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집단과 400만원 이상 집단이 차이를 보여($p < .01$), 월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공감배려가 높았다. 공감배려의 평균값은 $M_{100만원미만} = 15.87$, $M_{400-499만원} = 17.93$, $M_{500만원 이상} = 19.18$ 이었다. 다섯째, 관계회피에서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집단과 월소득 400이상 집단들이 차이를 보여($p < .01$), 월소득 최저집단이 관계회피가 낮았다. 관계회피의 평균값은 $M_{100만원미만} = 10.00$, $M_{400-499만원} = 7.54$, $M_{500만원 이상} = 6.84$ 였다. 여섯째, 타인의식은 월소득 100만원 이상 집단과 500만원 이하 집단들에서 차이가 있었으며($p < .01$), 월소득 100만원 이하 집단과 500만원 이상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을 제외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타인의식이 높았다. 타인의식의 평균값은 $M_{100만원미만} = 15.37$, $M_{100-199만원} = 19.19$, $M_{200-299만원} = 18.51$, $M_{300-399만원} = 19.31$, $M_{400-499만원} = 20.79$, $M_{500만원 이상} = 16.65$ 였다.

요약하면, 월 소득이 높은 집단은 주도성과 공감배려가 높으며,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집단은 주도성과 관계회피가 높고 관계의존과 타인의식이 낮았으며, 월 소득 500이상 집단은 타인의식이 낮았다.

3. 심리적 맥락에 관한 결과 : 가족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맥락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관계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의 총합점수 중앙치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의 질 고저집단, 사회적 지지 고저집단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어머니의 관계적 자기 양상을 분석하였다.

1) 가족관계의 질 고저에 관한 결과

가족관계 척도의 총합점수 중앙치를 기준으로 고집단(68명) 저집단(73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족관계의 질 고저에 따른 관계적 자기 평균점수가 표 8에 제시되었다.

가족관계의 질 고저에 관한 이원 반복 다변량분산 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 따르면, 관계대상에 따른 종속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8, 1698)} = 23.62, p < .001$). 또한 가족관계 질 고저에 따른 종속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표 8. 가족관계의 질 고저에 따른 6요인 평균점수

| 관계적자기 | 가족관계의 질 | | |
|-------|---------|-------|-------|
| | 고 | 저 | |
| 6요인 | 지지받기 | 17.87 | 15.82 |
| | 주도성 | 18.57 | 17.68 |
| | 관계의존 | 16.00 | 14.97 |
| | 공감배려 | 18.06 | 16.65 |
| | 관계회피 | 7.31 | 9.32 |
| | 타인의식 | 18.65 | 19.03 |

표 9. 가족관계의 질 고저에 따른 다변량분산 분석 결과

| 독립변인 | Pillai 트레이스 | F | df / 오차df | p | 부분에타 ² |
|-------------------|-------------|-------|-----------|-----|-------------------|
| 관계대상 | .60 | 23.62 | 18/1698 | .00 | .20 |
| 가족관계의 질 고저 | .11 | 12.12 | 6/564 | .00 | .11 |
| 관계대상 * 가족관계의 질 고저 | .03 | 1.00 | 18/1698 | .45 | .01 |

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6, 564)} = 12.12, p < .001$). 관계대상과 가족관계의 질 고저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관계대상에 따른 종속변수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단변인 F 검증을 한 결과, 관계적 자기 6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가족관계의 질 고저에 따른 종속변수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단변인 F 검증 결과는 관계적 자기 6요인 중 타인의식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유의하였다($p < .01$).

독립변인인 가족관계의 질 고저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족관계 질 고저에 따라 지지받기가 차이를 보였고 ($M_{\text{가족관계 고}} = 17.87, M_{\text{가족관계 저}} = 15.82, p < .01$), 관계의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M_{\text{가족관계 고}} = 16.00, M_{\text{가족관계 저}} = 14.97, p < .01$). 또한 가족관계의 질 고저에 따라 공감배려가 차이를 보였으며($M_{\text{가족관계 고}} = 18.06, M_{\text{가족관계 저}} = 16.65, p < .01$), 관계회피도 차이가 있었다($M_{\text{가족관계 고}} = 7.31, M_{\text{가족관계 저}} = 9.32, p < .01$). 요약하면, 가족관계의 질 고집단은 지지받기, 공감배려, 관계의존이 높았으며, 가족관계의 질 저집단은 관계회피가 높았다.

2) 사회적 지지 고저에 관한 결과

사회적 지지 척도의 총합점수 중앙치를 기준으로 고집단(73명) 저집단(68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고저에 따른 관계적 자기 평균점수가 표 10에 제시되었다.

사회적 지지 고저에 관한 이원 반복 다변량분산 분석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에 의하면, 관계대상에 따른 종속변인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8, 1698)} = 22.81, p < .001$). 또한 사회적 지지 고저에 따른 종속변인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6, 564)} = 6.56, p < .001$). 관계대상과 사회적 지지 고저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관계대상에 따른 종속변수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단변인 F 검증을 한 결과, 관계적 자기 6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사회적 지지 고저에 따른 종속변수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단변인 F 검증 결과, 관계적 자기 6요인 중 주도성과 타인의식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유의하였다($p < .01$).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 고저에 따른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 고저에 따라 지지받기가 차이를 보였고 ($M_{\text{사회적 지지 고}} = 17.64, M_{\text{사회적 지지 저}} = 16.00, p < .01$), 관계의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M_{\text{사회적 지지 고}} = 15.94, M_{\text{사회적 지지 저}} = 14.98, p < .01$).

표 10. 사회적 지지 고저 고저에 따른 6요인 평균점수

| 관계적 자기 | 사회적 지지 | | |
|--------|--------|-------|-------|
| | 고 | 저 | |
| 6요인 | 지지받기 | 17.64 | 16.00 |
| | 주도성 | 18.19 | 19.92 |
| | 관계의존 | 15.94 | 14.98 |
| | 공감배려 | 17.76 | 16.93 |
| | 관계회피 | 7.62 | 9.13 |
| | 타인의식 | 18.79 | 18.97 |

표 11. 사회적 지지 고저에 따른 다변량분산 분석 결과

| 독립변인 | Pillai 트레이스 | F | $df / 오차df$ | p | 부분에타 ² |
|------------------|-------------|-------|-------------|-----|-------------------|
| 관계대상 | .58 | 22.81 | 18/1698 | .00 | .19 |
| 사회적 지지 고저 | .06 | 6.56 | 6/564 | .00 | .06 |
| 관계대상 * 사회적 지지 고저 | .01 | .44 | 18/1698 | .97 | .01 |

지지 저 = 14.98, $p < .01$). 또한 공감배려에서 차이를 보였으며(M 사회적 지지 고 = 17.76, M 사회적 지지 저 = 16.93, $p < .01$), 관계회피도 차이가 있었다.(M 사회적 지지 고 = 7.62, M 사회적 지지 저 = 9.13, $p < .01$). 요약하면, 사회적 지지 고집단은 지지받기, 관계의존, 공감배려가 높았으며, 저집단은 관계회피가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맥락에 따라 어머니의 관계적 자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계대상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고, 경제적 맥락과 심리적 맥락을 피험자 간 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산 분석을 하였다. 경제적 맥락으로는 어머니의 취업상태, 가족의 경제 수준을 다루었으며, 심리적 맥락으로는 가족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 고저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관계대상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양상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는 관계대상에 따라 상이한 관계적 자기를 보였다. 즉 어머니는 배우자, 자녀, 시댁, 친정에 대해 각기 다른 관계적 자기를 나타냈다. 이는 관계대상에 따라 다면적인 관계적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지받기와 관계의존은 자녀, 배우자, 친정, 시댁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으며, 주도성, 공감배려는 자녀에 대해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와 친정에 대해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고 시댁에 대해서는 낮았다. 시댁에 대해서는 관계회피가 높았으며, 친정에 대해서는 타인의식이 낮았다.

관계대상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결과를 세 가지

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 결과는 가족 내에서의 어머니의 관계적 자기의 전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자녀에 대한 각별함이다. 자녀에 대해 어머니는 가장 높은 지지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타인의식을 보였고 가장 낮은 관계회피를 보여 자녀에 대한 각별함을 관계적 자기 패턴을 통해 드러냈다. 또한 시댁에 대한 불편함도 드러나고 있는데, 시댁은 자녀 및 배우자의 관계적 자기 패턴의 점수 순위와 정반대의 패턴을 보여 시댁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어머니의 관계 패턴이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편, 친정에 대해 어머니는 관계회피를 제외한 모든 관계적 자기 요인에서 자녀 및 배우자보다는 낮지만 시댁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배우자와 친정에 대한 주도성, 공감배려, 관계회피의 양상이 유사하였다. 이점은 어머니가 배우자와 친정에 대해서 비슷한 관계 특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친정에 관해서는 타인의식이 가장 낮았다. 같은 가족관계이지만, 배우자, 자녀, 시댁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상대방을 많이 의식하고 이들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려는 하지만 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식하거나 상대에게 맞추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어머니의 친정에 대한 고유한 관계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댁에 대해서는 관계회피와 타인의식이 동시에 높았는데 이는 시댁에 대한 어머니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관계대상으로 배우자, 자녀, 시댁, 친정에 대한 관계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Chen 등(2006)이 말한 관계 특수적(relationship-specific) 관계적 자기를 다루었다. 연구 결과, 배우자, 자녀, 시댁, 친정에 대해 매우 다양한 관계적 자기의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 대상 맥락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자기를 보여 준다는

Andersen과 Chen(2002), Ashmore와 Jussim(1997), Rosenberg(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머니가 관계대상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되는 관계적 자기를 보인다는 점은 관계적 자기의 유동성과 구성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Markus 등(1990)의 작업 중인 자기 개념(working self-concept), Baumeister(1998)의 현상적 자기(phenomenal self)와의 관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자녀, 시댁 등과 같은 관계대상 맥락은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나 그 빈도가 증가하면서 만성적으로 활성화되고, 점차 맥락 단서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그 대상에 대해 고정관념적인 자기를 드러낼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단기적으로 활성화되던 관계회피가 점차 그 빈도가 증가하면서 만성적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시댁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관계회피가 작업 중인 자기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가족 관계 내에서 어머니가 보여주는 관계대상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경제적 맥락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양상

경제적 맥락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 취업상태 및 가계의 월 소득 수준의 경제적 맥락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취업상태에 따라 어머니는 주도성에서 차이를 보여 풀타임은 주부 및 파트타임보다 주도성이 높았다. 또한 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소득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는 주도성과 공감배려가 높았으며,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의 어머니는 주도성과 관계회피가 높고 관계의존과 타인의식이 낮았다. 한편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어머니는 타

인의식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경제적 맥락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양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경제력은 관계적 자기의 다양한 요인 중 주도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업주부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보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는 관계를 맺는 상대에 대해 주도성을 높게 드러냈다.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가족 경제에 큰 몫을 담당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주도성이 높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자체가 주도성의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주도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둘째, 가족의 월 소득에 의해 구분되는 경제 수준은 어머니의 관계적 자기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다. 월 소득이 높은 어머니는 인간관계에서 주도성과 공감배려를 나타내었다. 반면 월 소득이 낮은 어머니는 주도성이 낮은 대신 관계회피, 관계의존, 타인의식이 높았다. 즉 월 소득이 낮은 경우, 어머니의 가족 내 인간관계는 양가적인 양상을 드러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피하면서도 관계에 의존하는 측면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심리적 역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타인의식과 관련하여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집단과 월 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의 어머니는 타인의식이 낮은 반면, 중간 소득 집단 어머니의 타인의식은 높았다. 결국 경제적으로 중산층인 어머니가 타인을 가장 많이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심리적 맥락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양상

심리적 맥락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양상을 분석

한 결과, 가족관계의 질 고저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은 차이를 보여 가족관계의 질 고집단은 지지받기, 공감배려, 관계의존이 높았으며, 가족관계의 질 저집단은 관계회피가 높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 고저에 따라 관계적 자기의 양상은 차이를 보여 사회적 지지 고집단은 지지받기, 관계의존, 공감배려가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 저집단은 관계회피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심리적 맥락이 지지적이고, 긍정적이면, 어머니는 가족 내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며, 가족관계에 대한 의존이 크고 가족원에게 공감과 배려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의 심리적 맥락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와 가족 내의 지지, 긍정적 경험 등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가족관계에서의 선순환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

결과에 따르면 관계적 자기는 관계대상, 경제적 맥락, 심리적 맥락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였으며, 이는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발달 시기적으로 역할과다와 역할 갈등이 높으며 가족관계에서 중심에 선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적 자기 양상을 살펴보고 취업상태, 경제수준, 가족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와 같은 맥락에 따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한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경험하는 관계적 자기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다루었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개인은 어떤 구체적인 관계 맥락에서 어떻게 다른 관계적 자기를 드러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관계적 자기

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조혜자 등(2006a, 2006b)의 연구와 애착유형에 따라 다른 관계적 자기 유형을 나타낸다는 노경란 등(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노경란 등(2007) 연구에서는 애착특성이나 성별 외에 대인관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관계대상과 같은 요인을 추측하고 상황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는데, 본 연구는 관계대상에 따른 효과와 어머니를 둘러싼 맥락을 함께 다루며, 관계적 자기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라는 점에서 다면적인 관계적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생각된다.

관계적 자기의 발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로 산다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를 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가족관계망의 중심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댁과 친정과 같은 원가족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며, 교육이 가정의 중심과제로 떠오른 요즘 자녀교육도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몫이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과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어머니는 자녀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혹은 단순히 중년기라는 발달단계의 특성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관계적 자기의 시각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는 배우자, 자녀, 시댁, 그리고 친정과 친구에 대해 각기 다른 관계적 자기를 보인다. 특히 자녀에 대한 관계양상은 맥락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지만, 배우자와 시댁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외적, 심리적 맥락에 따라 그 관계가 유동적이었던 점이 흥미롭다. 또한 가계 월 소득이 높을수록 관계회피의 경향은 줄

어 들었다. 한편 어머니가 풀타임으로 일할 때는 주부나 파트타임 어머니에 비해 주도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관계적 자기가 맥락에 따라 유동적임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 기초해 볼 때, 발달에서 한 개인의 변화를 기술하고자 할 때 그가 갖고 있는 관계적 자기의 내용을 검토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인간관계에서 시간과 맥락이 바뀌어도 변화의 폭이 적은 관계적 자기의 내용은 무엇이며 많은 변화를 보이는 측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해는 발달 현상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발달의 맥을 짚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발달적 전환기를 관계적 자기의 측면에서 기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리라고 본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발달전환기를 관계적 자기의 발달 측면에서 다루고 설명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노경란, 방희정, 조혜자(2007).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2(4), 471-490.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7).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23-63.

양옥경(2001). 가족관계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호, 119-147.

양옥경, 이민영(2003). 가족관계척도 활용을 위한 타당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5-33.

유영란(2005). 성인애착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

기은폐의 매개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휘숙(2007). 가족심리학. 박영사.

조혜자, 방희정(2006a). 한국 중년 여성의 관계적 자아. 한국 여성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자료집, 17-30.

조혜자, 방희정, 김아영(2006b). 관계적 자아의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연구 2차년도 심포지엄 자료집, 20-37.

Ashmore, R., & Jussim, L. (1997). Introduction: Toward a second century of the scientific analysis of self and identity.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 (pp.3-21), NY: Oxford University Press.

Andersen, S. M., & Chen, S. (2002). The relational self : An interpersonal social cognitive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09, 619-645.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Chen, S., Boucher, H. C., & Tapias, M. P.(2006) The relational self revealed: Integrative conceptualization and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life. *Psychological Bulletin.*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Cox, F. D. (1990). *Human intimacy : Marriage, the family, and its meaning*(5th ed.). St. Paul. MN : West.

Cutrona, C. E., & Russell, D. W. (1987). The

-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 to stres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1, 37-67.
- Duball, E., & Miller, B. (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6th ed.). New York : Harper and Row.
- Fiske, S. & Taylor, M. (1991). *Social cognition*. NY: McGraw-Hill.
- Fromm. (1962) *Beyond the Chains of Illusion: My Encounter with Marx and Freud*. London: Abacus.
- Higgins, E. T. (1989). Knowledge accessibility and activation: Subjectivity and suffering from unconscious sources. In J. S. Uleman & J. A. Bargh(Eds.), *Unintended thought* (pp. 75-115). New York: Guilford Press.
- Higgins, E. T. (1996). The "self digest": Self-knowledge serving self regulatory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62-1083.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1. NY: Dover.
- Kihlstrom, J., & Cantor, N. (1984). Mental representations of the self.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1-47). NY: Academic Press.
- Lerner, R. M. (1996). Relative plasticity, integration, temporality, and diversity in human development :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about theory, process, and method.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81-786.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arkus H., & Cross S. E. (1990) The interpersonal self.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576-608 New York: Guilford Press
- Markus, H., & Sentis, K. (1982). The self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pp41-70). Hillsdale, NJ: Erlbaum.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enberg, S. (1997). Multiplicity of selves.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 (pp.23-45),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i, A. S. (1977). A biosocial perspective on parenting. *Daedalus*. 106, 1-31.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retational Theory of Psychiatry*. NY: W. W. Norton & Co.
- Sullivan, H. S. (1964). *The Fusion of Psychiatry and Social Science*. NY: W. W. Norton & Co.
-
- 1차 원고 접수: 2008. 4. 15
수정 원고 접수: 2008. 5. 13
최종 게재결정: 2008. 5. 14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al Self according to Contexts

Sook-ja Cho, Hee-jeong Bang, Hye-ja Cho, Hyun-jeo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plore the modalities of relational selves according to contexts. The Relational Self Scale(RSS), Family Relationship Scale and Social Provision Scale were administered for 144 Korean mothers. The results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mothers show different pictures of the relational self according to objects of relation,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six factors of the relational self. On the factors of 'perceived support from relation' and 'over-dependency', mothers display the highest score in relations with their children, followed by their spouse, their parents' home, and the family of their husband. On the factors of 'agency', and 'empathy-care' they show the highest score in relations with their children, and similar patterns with their spouse and their parents' home. When they are connected with the family of their husband, mothers display the highest score in the areas of 'avoidance of relation'. On the other hand, they show the lowest score in relations with their parent's home on the 'consciousness of others'. Secondly, the relational self exhibits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economic contexts, such as mother's status of employment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level. Thirdly, mothers show different patterns of the relational self according to psychological contexts, which includ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and degree of social support. These results support the multi-dimensionality of the relational self.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give suggestions as to how to describe and explain developmental contexts by clarifying the psychological contents specifically about how mothers experience relational selves among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own family members.

key words: relational self, multi-dimensionality of the relational self, object of relation,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 economic context, psychological context